

국내 대표축제 타이틀 노린다

익산시,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20회 맞아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위한 세미나 개최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가 내년 20회를 맞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시는 28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관공학계, 타 지역 국화축제 전문가, 문화예술계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6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천만송이국화축제가 내년 20회를 맞아 전국단위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 박종대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6인은 그간 축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축제 장소의 변경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국화 전시연출의 방법(화분진시형 식재형)에 대한 고찰 국화축제 운영 방식 이원화 등에 대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3년만에 열린 축제를 주 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 외에도 미륵사지, 익산역 등 7개소에 분산 전시하는 등 다양한 진행 방식을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국화작품을 '보는' 축제에서 '즐기는' 콘텐츠형 축제로의 변화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작가와 콜라보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축제의 주제를 살린 정크아트존을 구성하고, 특별전시장 내 LED 경관조명 및 다양

한 빛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국화축제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여 관람객을 매료시켰다.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전시장 무료인장, 탄소중립 실천 인증 이벤트, 음식접이용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해 관광객의 축제 참여도를 끌어올렸다.

이같은 노력으로 10일간의 짧은 축제기간 동안 6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60여억원 경제 유발효과를 거둬 미래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축제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5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황금로 확장 필요성 제기

조규대 익산시의원, 정례회 5분 발언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은 28일 개최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황등교와 4차선 로터리를 연결하는 황금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황금로는 황등삼거리에서 삼기면을 지나 금마를 잇는 총 연장 96.3km의 지방도로써 익산시 북부권의 인적·물적 수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3산업단지

와 제4산업단지의 분양이 마무리되어 가고 입주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차로가 왕복 2차로로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황금로의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4차선 로터리를 하나를 연결하는 1.3km 구간은 현재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며, "황등교에서 4차선 로터리에 이르는 나머지 구간도 시급히 확장하여 북부권의 두 동맥인 23번 국도와 하나를 연결하고, 물류를 통한 북부권 발전의 시급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확장 공사가 진행중인 황금로의 4차선 로터리를 하나에 이르는 구간은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마을안길 227개소 새단장... 주민 환경 개선

익산시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 골목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했다.

시는 올해 58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안길 총 227개소에 대해 포장 및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마을안길사업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골길 및 시내 골목길 포장정비를 말한다.

개인 사유지와 사업 구간이 많아 오랫동안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대규모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익산시장의 '우리동네 행복버스'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헌율 시장 "적극·친절행정 시스템 재정비" 주문

시의회 정례회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한 안건 처리도 강조

정헌율 익산시장의 적극적인 응대로 민원인에게 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친절행정"은 청렴도와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민을 한 분 한 분 섬기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민원 요청 시 여러 부서를 계속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며 "민원인이 요청하면 관련 부서가 아니어도 신속·정확하게 답변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친절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의 민원제기 과정을 전화, 방문, 특이민원으로 구분해 단계별 응대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책자로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또한 직원들이 친절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개최되는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시정질문과 조례안, 동의안 등 많은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번 회기는 내년도 사업들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전 부서는 충분한 자료를 통한 소신있는 답변으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박철원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익산시의회에서 익산시 관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십 수년간 익산시민으로 살며 익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관외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입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타지 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반대로 십 수년

간 익산시민으로 살던 학생들이 관외 대학으로 진학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익산시로 주소를 옮기는 타지 학생들에게는 전입지원금 등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정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타지로 진학한 관외 대학생들에게는 매물쳤다"며 서울 소재 장학금 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마저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관외 대학생 주거비 지원과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등록번호 도입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6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지역별'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도 도입 주요내용을 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8자리로 개편되고 색상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한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판 크기가 다르고 제작각인 등록번호표 규격 또한 1종류로 통일(520x100mm)한다.

새로운 등록번호표는 제도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편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제95회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는 28일 임피중학교 내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비 앞에서 제95주년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정상호 군산문화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을 비롯, 유공자 후손 및 학생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기념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제례가

실시됐다.

기념식은 헌화, 헌무, 헌시, 격려사, 축사, 애국지사 소개, 후손대표 인사 등으로 진행돼, 감사와 숭고한 정신을 가리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호 군산문화원장은 "옥구 서수에서 일어난 농민항일항쟁은 1927년 11월 이엽사 농장 일본인 지주의 고을 소작료 요구 등 혹독한 착취와 폭압에 맞서 봉기한 우리나라 농민저항 운동사의 대표적 항쟁이다."며 "앞으로 더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항일 농민투사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이어받고 일을 되새기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들이 옥구농민 선열들의 열을 계승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신흥도시숲 공원에 야간경관 조성 추진

군산시는 28일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신흥도시숲 공원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은 경사지와 계단식 지형 등 다양한 공간구조를 이용한 체험형 야간경관조명 사업이다. 달조명 등을 설치해 어두운 분위기와 공원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조성했으며 지난 10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전북도에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해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3억 6천만원 규모로, 옛 달동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대규모 옹벽에 신흥도시숲과 말뚥이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낸 벽화와 경관조명을 가미한 조형물 등을 통해 친근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